

쉬브삭티판다브군대의특질

오늘 암릿 벨라에 밥다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도 마음 가까이에 머물면서 바바 앞에 온 특별한 2종의 외국인 자녀들을 보고 있었다. 오늘 바바와 다다 사이엔 다정한 마음의 대화가 있었다. 무슨 주제에 관해서였겠느냐? 아버지 브라마는 2종의 외국인 자녀들에 대해 각별히 흡족해하며, “그토록 멀리 떨어진 나라의 주민들이면서도 너희가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모든 이가 반드시 밥다다의 메시지를 받게 하겠다는 확실하고도 깊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너희 자녀들의 경이로움이다”라고 말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어떤 자녀들은 곽절로 과업을 행한다. 로킵한 일들과 알로킵한 일들로 인해 배로 바쁘게 지내면서 그들은 휴식을 고려하지 않고 밤낮으로 항상 그 과업에 몰두해 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봉사하느라 분주하다. 순수성을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생활이라 여기지만 너희들은 용기, 결단, 아버지에 대한 사랑, 기억의 순례로, 또 평화의 성취라는 기반과 공부와 가족의 동반을 바탕으로 순수성을 너희의 삶에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대단히 어렵다고 여기는 것을 너희는 쉽게 만들었다. 판다바 군대를 보며 아버지 브라마는 특히 너희 자녀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떤 측면에 대해서였겠느냐? 너희는 순수성이 요기가 되는 으뜸의 방법이라는 것을 각자 마음속에 담고 있다. 순수성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단이다. 순수성은 봉사에서 성공하는 기반이다. 너희 각자가 마음속에 이 순수한 생각을 아주 굳건하게 가졌다. 너희 판다바들의 경이로운 기적은 삭티들을 계속 앞에 두고 지내면서도 열성과 열의를 갖고 전진해서 너희 스스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너희 판다바들의 치열한 노력의 속도를 보면 그것이 너희가 잘 발전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들 중 대다수는 계속해서 이 속도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버지 쉬바가 이미 일러주었듯이, 판다바들은 특히 존중해주는 데서 좋은 기록을 보여왔다. 더불어 그는 뭔가 재미있는 얘기도 역시 들려주었다. 도중에 그들은 산스카르의 게임도 역시 한다. 그렇다 해도 어쨌든 발전하려는 열의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사랑에서 비롯된 그들의 변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이 제 스스로를 바친 이유가 이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아버지가 말하고 원하는 것만을 한다. 그들은 이 생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그들의 노고는 힘든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뭔가를 참아내는 것은 참으며 견디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바바, 바바??하며 계속 전진하고 있다. 산스카르와 이번 생에 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정된 창조자이긴 해도 그들은 이제껏 스스로를 아주 잘 변화시켜왔다. 창조자 아버지를 그들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에고 없으며 겸손해지겠다는 자격요건을 잘 익혔고 그것들을 여전히 훈습하고 있다.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남들과 접촉하지만 그들은 사랑과 기억의 보호의 가리개를 가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내는 매우 훌륭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너희들은 판다바들에 대해서 들었느냐? 오늘 밥다다는 사랑받는 이가 아닌, 사랑하는 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희들을 보며 기쁘다. 두 아버지 다 너희 자녀들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암릿 벨라에 밥다다는 자녀들의 특질들과 미덕들의 염주를 돌렸다. 사람인 너희들 모두 63생 동안 염주를 돌려 왔고, 아버지는 보답으로 이제 염주를 돌리며 너희에게 응답하고 있다. 앗차.

바바가 삭티들의 어떤 염주를 돌렸겠느냐? 삭티 군대가 가진 최대의 특질은 너희가 매 순간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한 분과 모든 관계를 다 가진 경험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잠겨

있음으로써 사랑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한 눈에는 아버지를, 다른 한 눈에는 봉사를 담고 있다. 너희가 이루어낸 특별한 변화는 너희 스스로의 부주의함과 너희의 민감한 성질을 버린 데 있다. 너희는 용기를 가진 삭티의 모습이 되었다. 오늘 밥다다는 특히 젊은 삭티들을 보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이 시대에 너희는 온갖 유형의 일시적인 유인들을 버리고 열성과 열의를 갖고 아버지 한 분의 끌어당김으로 나아가고 있다. 너희는 세상이 무미건조한 세계임을 경험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너희들의 세계로 만들었다. 너희의 몸, 마음, 부를 아버지와 봉사를 위해 쏟음으로써 너희는 성취를 경험했고 이제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발전하고 있다. 너희들은 봉사에 대한 책임의 왕관을 아주 잘 써왔다. 심지어 때로는 피로를 겪으면서도, 더러 너희의 지각에 무게를 경험하면서도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결의를 가짐으로써, 그를 드러내야 한다는 결심으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끝내고 성공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자녀들의 사랑을 보며 거듭해서 “자녀들이 용기를 지속할 때 아버지가 돕는다”라며 축복해준다. 성공은 어차피 너희들의 타고난 권리다. 아버지와 늘 함께 함으로써 너희는 모든 상황을 마치 버터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것처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성공은 자녀들 목둘레의 화환이다. 성공의 화환은 너희 자녀들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므로 밥다다조차도 너희 자녀들의 버림, 타파샤, 봉사에 그 스스로를 바친다. 사랑으로 인해 너희는 그 무엇도 어렵게 경험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렇지 않느냐?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세계나 아버지의 언어에는 “어렵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삭티 군대의 특질은 뭔가 어려운 것들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는 각자 가능한 한 빨리 메시지를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아버지 앞에 영적인 장미꽃 다발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려는 열의를 마음에 지녔다. 아버지가 너희를 만든 것처럼 너희 역시 남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데려올 필요가 있다. 해외에 있는 삭티 군대는 집단 전체가 서로 협력해서 바라트에서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순수한 열의를 가졌다. 생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공도 역시 있다. 너희들 각자의 장소에서 삭티 군대는 잘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것에 성공하고 있고 계속 그러할 것이다. 양쪽 모두의 사랑을 보고 봉사에 대한 그들의 열의를 보며 밥다다는 기쁘다. 바바가 각자의 미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칭송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서틀 리전에서 밥다다는 자녀들 하나하나의 미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사람들 일부가 그것에 대해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가 떠날 것인 반면, 외국의 자녀들은 그를 알아보고 자기들의 권리를 차지했다. 저 사람들은 지켜보며 남아있을 테고 너희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소리쳐 부르고 있을 테지만 너희는 계속 축복의 드리시티로 뭔가를 한 방울씩 줄 것이다.

이렇게 밥다다가 오늘 뭘 했는지 너희는 들었느냐? 집회 전체를 보며 밥다다는 각자의 행운을 창조해내고 있는 복 많은 자녀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들은 가까워진 반면 아부에 사는 자들은 아주 멀어졌다. 그들은 가까이 살면서도 멀고, 너희는 먼 데 살고 있지만 가깝다. 그들은 단지 지켜만 보는 자들이고 너희는 언제나 마음의 옥좌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사랑으로 마두반에 올 여러 가지 길을 찾아낸다. 매달 너희들은 “나는 아버지를 만나길 원해”라는 이 노래들을 부른다. “나는 거기에 가길 원해. 그걸 위해서 난 저축해야 해.” 그래서 이 사랑은 마야의 정복자가 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만일 너희가 표를 쉽게 받는다면 그 사랑에 더 많은 장애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아서 호수를 만든다. 그러한즉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모든 방울 속에 합쳐져 있다. 이런 이유로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유익하다. 만일 너희가 큰 돈을 받는다면 마야가 올 테고 너희는 봉사를 잊을 것이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지 않는다.

너희는 벌고 또 너희는 저축한다. 참된 소득에서 생긴 돈을 저축하는 데는 힘이 있다. 참된 소득의 돈은 아버지의 과업을 위해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너희가 돈을 그냥 그렇게

받는다면 너희의 몸은 그것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몸이 쓰이지 않는다면 너희의 마음도 역시 동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 마음, 부, 이 세 가지 모두 이것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합류시대에 벌어서 신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1등의 삶이다. 너희가 단순히 벌어서 없어질 세속의 은행에 저축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벌어서 불멸의 은행에 모아둔다면 그 경우엔 하나가 수백만 배가 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21생 동안 쌓인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는 일은 뭐든 마음의 위로자 디아람에게 도달된다. 어떤 이가 단지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보여주는 데 전부 다 쓰일 뿐, 마음의 위로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 행동하는 너희들은 선량하다. 진심에서 우러나 뭔가를 하면 억만장자가 되는 반면, 단지 보여주려고 할 경우는 그것의 천 배를 해도 억만장자가 되지 못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소득, 사랑의 소득이 참된 소득이다. 너희는 뭘 위해서 돈을 버느냐?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냐? 아니면 너희 각자의 안락함을 위해서냐? 따라서 참된 마음의 소득은 수백만 곱절이 된다. 너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벌어서 저축한다면, 비록 여기서는 너희가 안락할지라도 나중에는 남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인들, 하녀들은 뭘 하느냐? 그들은 왕족에게 안락함을 주려고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휴식과 안락함을 취함으로써 너희는 거기서 휴식과 안락함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과 참된 마음으로 버는 것을 뭐든 봉사를 위해 쓴다면 너희는 그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많은 영혼들에게서 축복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도구가 된 자들이 너희의 신봉자가 되어 너희를 숭배할 것이다. 너희는 그 영혼들에게 봉사했고, 그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은 너희의 살아 있지 않은 형상들을 섬기고 숭배할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63생 동안 너희에게 봉사에 대해 보답할 것이다. 너희는 어차피 아버지에게서 받겠지만 그 영혼들에게서도 역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메시지를 전해준 자들이 그 다음에 권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보답할 것이다. 권리를 차지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너희와 친인척 관계로 들어간다. 일부 어떤 이들은 너희와 친척 관계가 되고 어떤 이들은 신봉자가 된다. 일부는 백성이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 이해하느냐? 사람들은 묻기를, 당신들은 왜 봉사하며 돌아다닙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한다. 밤낮으로 봉사를 쫓아다니면 뭘 받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처럼 해보고 우리가 뭘 받는지 경험해 보세요, 라 한다. 오직 이 행복을 경험해본 자들만이 이것에 대해서 압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것 아니냐? 앗차.

변함없이 사랑에 넋을 잃고 있는 자들에게, 버림을 한결같이 행운으로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에서 끊임없이 수백만을 만들어내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밥다다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그들의 세계로 경험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옥좌에 앉혀진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이중의외국인들을개별적으로만나심:

너희는 제 스스로를 복 많은 영혼이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적어도 행운의 공여자가 있는 곳에 도달할 만큼 참으로 크나큰 행운을 창출했다. 너희들은 이 장소가 무엇인지 이해하느냐? 평화의 장소에 도달한 것 역시 행운이다. 따라서 행운을 얻는 이 길도 역시 열렸다. 드라마에 따라서 너희는 행운을 얻는 장소에 왔다. 행운의 선은 여기서 그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각자의 행운을 드높게 만들었다.

자 이젠 시간을 약간 내줘라. 너희는 시간을 가졌고 너희는 또 함께해 줄 수도 있다. 이것에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 뭔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한다. 쉬운 일이라면 그냥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삶 속에서 가진 모든 일시적인 희망과 욕망들이 불멸의 성취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그러한 일시적인 욕구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너희가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제 그림자를 잡으려고 더욱 애쓸수록 그것은 너희보다 더 많이 앞서갈 테고 그러면 너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저 계속 앞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뒤따를 것이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불멸하는 성취를 뒤따름으로써 없어질 것들은 모두 끝날 것이다. 이해하느냐? 이것이 일체의 모든 성취를 얻는 데 쓰는 방법이다. 단기간의 버림은 너희가 영원히 행운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이해함으로써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넘치도록 많은 행복의 보물을 얻을 것이다. 삶 속에서 최대의 보물은 행복이다. 행복이 없다면 삶이 없다. 이처럼 너희들은 불멸의 행복이라는 보물을 얻을 수 있다.

봉사는너희의단계를만드는수단이다.

밥다다는 자녀들에게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성과 열의를 본다. 자녀들의 열성과 열의는 밥다다에게 와 닿는다. 자녀들은 세상의 VVIP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려는 소망을 가졌다. 너희는 이기심 없는 봉사의 결실을 틀림없이 받기 때문에 이 열의는 계속 실현될 것이다. 봉사는 너희 자신의 단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 봉사가 너무 크고 너희의 단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라. 어쨌든 봉사는 자동적으로 너희의 단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남들에 대한 봉사는 자아발전의 수단이다. 봉사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너희의 단계를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느냐?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또 너희의 힘이 늘어남으로써 그 단계도 역시 올 것이다. 이해하느냐? 그러므로 “내 단계가 그렇지 못하데 내가 어떻게 이 봉사를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아니다. 그 일을 계속해라. 밥다다의 축복은 “너희는 반드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사의 달콤한 굴레가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각자의 경험이라는 권위를 갖고 진심에서 우러나 말하는 자들의 소리는 그들의 가슴에 가 닿는다. 경험의 권위를 가진 말은 남들이 경험을 하게끔 고취시킨다. 봉사에서 발전하는 동안에 닥쳐오는 시험들도 역시 전진하는 수단인데, 왜냐하면 너희의 지각이 그것에 작용하게 되고 너희는 기억하며 머무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특별한 승강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지각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위기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들어 있다. 장애가 제아무리 큰 형태로 와도 고귀한 영혼인 너희는 거기서 유익을 얻는다. 그러면 그 큰 형태가 너희가 가진 기억의 힘을 통해 작아진다. 그것은 종이호랑이와 같다. 앗차.

축복: 너희는 딥말라에 정확한 방식으로 너희들의 신인 지위를 불러내는,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 되어라.

예전에는 딥말라 때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등불을 켜놓고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기름을 붓고, 올바른 방식으로 불러내는 관습을 가졌었다. 지금은 디파크 (등잔불) 대신에 그들은 그냥 전구를 사용한다. 이제 그들은 딥말라를 축하하지 않는데, 그것이 한낱 여흥의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신을 불러내어 비는 방법, 즉 영적 노력은, 이미 끝났다. 사랑은 끝났고 단지 이기적 동기만 남았으며, 그래서 참된 공여자의 형태인 락슈미가 어느 누구에게도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모두 너희 각자의 신인 신분을 실제로 불러내고 그래서 너희는 신인이 된다.

솔로건: 항상 무한한 태도, 시선, 단계를 가져라, 오직 그제야 비로소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과업이 달성될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